



미끌미끌 화장실에서는 조심조심!

김예림



햇살이 눈부신 오후, 유치원 화장실 앞으로 토끼 예림이와 다람쥐 슬희, 사자 서현이와 호랑이 영신이가 모였어요. 손을 씻으러 온 친구들은 벌써부터 신이 나서 엉덩이를 실룩실룩 흔들며 싱글벙글 웃었습니다.



사자 서현이가 가장 먼저 화장실 문을 드르륵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서현이는 빨리 손을 씻고 싶어서 다리를 번쩍 들고 성큼성큼 커다란 걸음으로 힘차게 걸어갔지요.



그때 화장실 바닥에 물방울들이 퐁퐁퐁 떨어져 있는 것을 호랑이 영신이가 발견했어요. 영신이는 깜짝 놀라서 동그래진 눈으로 서현이를 바라보며 큰 소리로 외쳤답니다.



서현아, 바닥에 물이 있어서 미끌미끌해, 조심조심 걸어야 해! 영신이의 다정한 목소리를 들은 서현이는 가던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자 서현이는 이제 아기 고양이처럼 발걸음을 가볍게 하고 사뿐사뿐 걷기 시작했어요. 다람쥐 슬희도 뒤따라오며 발가락에 힘을 주고 꼬물꼬물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지요.



토끼 예림이는 평소처럼 강충강충 뛰고 싶었지만, 꼭 참고 거북이처럼 느릿느릿 걸었어요. 친구들 모두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조심 걸어서 미끄러운 바닥을 안전하게 지나갔답니다.



보글보글 비누 거품을 내어 친구들은 차례차례 손을 깨끗하게 씻었어요. 시원한 물이 쏟아 내리자 손에 묻은 거품들이 반짝반짝 빛나며 아래로 쓱 내려갔지요.



손을 다 씻은 호랑이 영신이는 수건으로 손바닥의 물기를 툭툭툭 닦아냈어요. 그리고 바닥에 물이 더 떨어지지 않도록 손을 탈탈 털지 않고 얇전하게 모았답니다.



토끼 예림이가 안전하게 행동한 친구들을 보며
엄지손가락을 척 올렸어요. 뛰지 않고 조심조심 걸어
준 서현이와 슬희, 영신이 너희들 정말 멋지고 대단
해! 하고 칭찬해 주었지요.



칭찬을 들은 친구들의 얼굴에 하트가 뿡뿡 피어 오르고 어깨가 으쓱으쓱 올라갔어요. 네 명의 동물 친구들은 화장실에서는 언제나 조심조심 걸기로 약속하며 하하호호 다 함께 웃었습니다.